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7

2016 | Vol. 537

가다자와현 가마쿠라(神奈川県鎌倉)
Photo: Kazuhisa Ishikawa

벳쇼 코로(別所浩郎) 주한일본대사 이임 인사



2012년 10월, 부임 직후에도 ‘일본의 새소식’ 독자 여러분께 인사 드렸는데, 부임 후 3년 8개월이 지나 다시 이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임에 즈음해, 주한일본대사로서의 근무를 돌아해보니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3년 8개월은 역대 주한일본대사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이었으며, 덕분에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작년 6월 22일 열린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으로 서울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고, 거의 같은 시각 도쿄(東京)에서 열린 행사에 아베(安倍) 총리께서 참석하신 일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한 관계의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작년 11월에는 일한 정상회담이 열렸고, 12월 28일 일한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한 관계를 계속 강화해 가려면 쌍방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흐름이 좋아지는 가운데, 임무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인상적이었던 일은,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입니다. 이 행사에는 많은 양국의 젊은이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일한 교류 행사를 위해 땀 흘리고 있어,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이 행사의 피날레에는 관객, 출연자, 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춤출 기회가

있는데, 저도 젊은이들과 어울려 함께 춤을 즐겼습니다.

주한일본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일한 우호 관계의 강화를 위해, 한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일한 간의 자매도시결연 건수는 제가 부임할 당시 151건이었으나, 지금은 160건이 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 지방과 지방의 교류입니다. 인적 교류와 자매도시결연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한 관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외무성의 한반도 담당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인데, 그때까지 일한 관계는 널뛰기를 반복하면서도 긴 안목으로 보면 인적 교류와 경제 관계가 모두 발전했고, 확실히 진전을 보였습니다.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2015년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기를 맞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약440건에 이르는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등, 참으로 일한 정부가 정한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잘 어울리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었지만, 일한의 새로운 50년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일한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 합니다.

끝으로, 재임 기간 동안 보살펴 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임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토 마사루 공보문화원장 초청 특강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지난 5월 18일, 사토 마사루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이 공주지역을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사토 원장의 공주대 초청특강 내용을 소개하는 ‘금강뉴스’의 기사를 관련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한국과의 인연은 한 장의 ‘불국사 그림엽서’에서 시작되었다.” 5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주대 구 본관 3층에서 사토 마사루(佐藤勝)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의 초청 특강이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윤용혁 공주학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나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며 “특히 고대왕국 백제는 일본과 가장 밀접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 백제문화제 등 백제의 역사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본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인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면서 무령왕을 키워드로 하여 동아시아 민간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무령왕국 제네트워킹협의회(회장 정영일)와 공주학연구

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특강의 의미를 강조했다.

공주학연구원 글로벌네트워크 통역담당 나정희 씨의 통역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사토 마사루 공보문화원장은 “초등학교 때 KBS의 일본어 방송을 듣고 청취소감을 보냈더니 답장으로 ‘불국사 그림엽서’를 받은 것이 한국과의 첫 인연이었다(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관련내용 http://www.kr.emb-japan.go.jp/cult/cul_guide_greet.htm)”며 “1년 반 전 (한국에) 부임한 이래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와 마곡사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여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신의 업무는 ‘양국의 문화교류’라는 사토 공보문화원장은 한국의 매력을 △문화 △자연 △스포츠를 꼽으면서, 특히 작년은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2015년 6월 22일 서울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개최된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를 소개했다.

이어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인 작년에 양국정부가 승인한 사업만 해도 400만 건이 넘어 매일 1건 이상의 기념행사를 한국과 일본 어딘가에서 개최된 셈”이라며 “다양한 차원과 폭넓은 분야에서의 이런 노력은 양국 간의 교류 촉진, 상호 이해 증진, 우호관계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찾는 한국의 관광객 수도 연 4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수는 184만 명, 양국간 인적 교류가 584만 명에 양국간 자매도시교류는 160 건”이라며 “민간 부문의 경제적 협력에서도 유사성을 갖고 경쟁 또는



이익 공유를 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공동수입, 수출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JENESYS(청소년교류사업)의 JET 프로그램(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을 소개하면서 “이 사업은 일본의 지방자치체가 국제화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적교류사업으로 한국에서는 199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 4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마사루 공보문화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는 장구한 역사와 폭넓은 국민의 교류가 존재했었다”며 “작년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이어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특강 시작 전에 오카리나 앙상블의 ‘아리랑’, ‘You are my sunshine’ 외에 일본 노래 ‘고향’의 가사를 유제자 시인이 낭송하고, 오카리나 연주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Heart” of JAPAN ~Technology & Tradition

철도박물관, 리니어 · 철도관

일본의 중심, 아이치현

아이치현(愛知県)은 세계적인 기업 · 도요타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집적지다. 또 관광의 핵심 요소인 쇼핑, 먹거리 그리고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온천 등의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일본열도의 거의 한 가운데 자리한 육해공 교통의 요충지로서 일본 각지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치현 추부(中部)국제공항으로는 인천과 부산에서 주49편이 취항하고 있다.

연료 전지 자동차 MIRAI



산업 관광

아이치현은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산업이 집적된 일본 최고의 산업 현이다. 현 내에는 이들 산업과 관련한 견학이 가능한 공장과 전시시설 등이 많다. 특히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실제 가동하는 제조라인을 견학할 수 있어, 해외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도요타 회관’에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로봇과 미래의 자동차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2015년 11월 11일에는 아이치현의 ‘미쓰비시(三菱) 항공기’가 생산한 일본 최초의 소형 제트여객기가 첫 시험비행을 마쳤



마네키네코의 고향

으며, 2017년 가을에는 항공 산업 강화를 위해, 항공기를 테마로 견학도 가능한 거점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전통산업과 관련해서는 도코나메시(常滑市)에 도자기를 테마로 한 관광 코스 ‘도자기 산책로’가 있다. 굴가마와 벽돌 굴뚝 등 도자기 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다수 남아있으며, 복을 부르는 초대형 고양이 장식물 마네키네코(招き猫)도 볼 수 있다. 또 세토시(瀬戸市)에 있는 ‘마네키네코뮤지엄’은 일본 최대의 소장품을 자랑하는 마네키네코 전문 박물관이다. 5,000여 점에 달하는 흥미진진한 전시물과 더불어, 도자기에 마네키네코 그려 넣기 체험 및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나고야시(名古屋市)의 ‘아리마쓰(有松)·나루미시보리(鳴海絞り)’는 일본 전통 공예품으로도 지정된 홀치기 염색을 일컫는 말로 무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 기법은 100여 가지에 이르며, 제품도 비단·무명·화학 섬유를 홀치거나 묶어서 염색하는 전통 방식을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 있다.

아리마쓰·나루미시보리



한다(半田) 적벽돌 건물

그 밖에도 아이치현에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속속 탄생하고 있다.

5년 전, 나고야 항만 지역에 JR 도카이(東海)에서 철도박물관 ‘리니어(자기부상)·철도관’을 개장했다. 시험주행코스에서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세운 차세대 초전도(超電導) 자기부상열차를 비롯해, 신칸센과 증기기관차를 전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물 크기의 신칸센 운전석에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나고야시과학관’은 가족이 함께 즐기며 과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시설로 ‘리니어·철도관’과 마찬가지로 5년 전 리뉴얼했다. 기네스북에서 인정한 세계 최대의 플라네타륨(반구형의 천장에 설치된 천체 투영관)에서 박력 넘치는 하늘의 별을 조망할 수 있다. 또, 일본 최초 시설로 영하 30℃의 방에서 오로라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고쿠칸라보(極寒ラボ)’도 있다.

자연 경관과 온천

아이치현은 철따라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웅대한 바다가 펼쳐지는 등 자연이 풍요로운데, 이런 경치를 보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온천 또한 많다.

도요타시(豊田市) 오하라(小原) 지구에는 벚꽃과 단풍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오하라의 산골마을을 물들인 10,000여 그루의 시키자쿠라(四季桜) 벚꽃의 아련한 색조와 선홍색 단풍의 대비는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시키자쿠라는 봄과 가을에 꽃을 피우는,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두 철 벚꽃으로 만개는 11월경이다.



고우란케

마찬가지로 도요타시 아스케(足助) 지구에는 단풍의 명소인 '고우란케(香嵐溪)' 계곡이 있다. 도모에가와(巴川) 강을 따라 고자쿠지(香積寺) 절 주변을 울긋불긋 뒤덮은 4,000여 그루의 단풍이, 11월 중에는 밤9시까지 조명을 받아, 다이케쓰쿄(待月橋) 다리와 어울려 환상적인 정경을 연출한다. 또 도모에가와 강의 물소리와 짝은 신록으로 뒤덮인 여름 경관 또한 훌륭하다. 미카와(三河) 만 주변에 있는 가마고리시(蒲郡市)는 아이치현 최대의 온천지로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정취 있는 온천 료칸이 많다.

아이치현 최대 온천지 가마고리시



나고야메시

나고야의 독특한 먹거리로 '나고야메시(なごやめし,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독특한 식문화'라 불리는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명물 요리를 소개한다. 장어구이를 잘게 썰어 밥에 올린 '히쓰마부시(ひつまぶし)'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두 번째는 와사비를 얹어서, 세 번째는 차에 말아 오차즈케(茶漬け)로 먹는다. 아이치현의 특산물인 '핫초미소(八丁味噌)' 된장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튀겨 소스를 뿌린 것을 말하지만, 아이치현에서는 돈가스에 핫초미소를 뿌려 먹는 '미소가스(味噌カツ)'가 있다. 이 외에도 핫초미소를 넣어 만든 국물에 굵은 생면과 파, 닭고기 등을 넣어 푹배기에서 끓여 내는 '미소니코미(味噌煮込み)' 우동도 아이치현이 발상지다.

이처럼 아이치현은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오사카(大阪)·교토(京都)와 도쿄(東京) 사이에 위치해 신칸센으로 오사카에서 50분, 도쿄에서 1시간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여행일정을 하루, 이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한층 깊이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집필: 아이치현, 협력: CLAIR, Seoul)



키라메쿠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회사원에서 요리사의 길을 선택한 키라메쿠의 김현수 셰프. 제패니스 스타일의 ‘일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본요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눈빛에서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이의 아름다운 열정이 느껴졌다.

‘키라메쿠’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일본어로 키라메쿠는 ‘반짝이다’라는 뜻으로, 고어를 보면 ‘잘 대접하다, 환대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반짝거리는 철판으로 요리를 대접한다는 뜻에서 ‘키라메쿠’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서브 브랜드로 백화점에 입점한 ‘키라메쿠 코도모’가 있는데, 키라메쿠의 아이, 작은 키라메쿠라는 뜻입니다.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고하셨지만,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시던 요리사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일본에서 석박사를 모두 받으신 의사라 일본에도 자주 가봤고 일본요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집안에서는 제가 요리사가 되는 걸 반대하셨어요.

작은 아버님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걸 전부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4~5년 정도 근무했는데,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면 부양가족이 생겨서 큰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테고, 이 때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내고, 일본요리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우선 언어 문제가 있었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한국의 나카무라 아카데미는 언어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일본 현지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를 1등으로 졸업하며 전액장학금 지원을 받았지만, 공교롭게 가게 오픈 시기와 겹치면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리사의 길을 선택하며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

이 길을 선택하며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가게를 오픈 하는 것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 안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이’ 라는 생각에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실패하더라도 지푸라기는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픈 직후, 같이 일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나오지를 않아, 혼자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요리하고 서빙하면서 그 때는 정말 힘들었지요.

요리사로서 직원들과 신메뉴를 자주 개발하고 있는데, 요리를 드신 손님께서 맛있으니 메뉴에 넣으라고 하실 때 요리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요리를 할 때, 일본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분도 계시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한다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일본 현지 맛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픈 초기부터 그렇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셰프는 대중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서로의 이런 고집이 융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반된 성격의 요리사가 만나 적당히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일본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맛’이겠죠. 처음 요리를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한국에는 일식집은 많은데, 일본요리점이 거의 없다’며, ‘너희들은 일식 즉 제패니스 스타일을 배울게 아니라, 일본요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일식’이 아닌 ‘일본요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판야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외식으로 고기 먹으러 가자’하면 삼겹살을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경우 ‘뱃판야키’ 철판요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판야키를 선택하게 되었고, 일본의 룻폰기나 긴자에서 실제로 일본 분들이 자주 찾는 매장을 컨셉트로 해서, 최상급 재료를 사용한 스테이크 요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요리의 매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일본요리는 눈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은 물론이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플레이팅 등 앞으로도 배우고 싶은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은.

이곳 본점을 시작으로 백화점에 들어가는 매장 때문에 파생적인 브랜드가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키라메쿠’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기후현 하시마시 열정적인 축제와 여름 불꽃놀이

하시마시(羽島市)는 일본의 거의 한가운데인 기후현(岐阜県) 남부에 위치하며, 기소가와(木曽川) 강과 나가라가와(長良川) 강의 혜택을 받은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다. 도카이도 신칸센(東海道新幹線) 기후하시마역(岐阜羽島駅)과 메이신(名神) 고속도로 기후하시마 인터체인지를 겸비한 고속교통의 거점도시다. 또 하시마시에는 휘황찬란한 장식수레인 다시(山車)가 거리를 행진하는 미노타케하나마쓰리(美濃竹鼻まつり) 축제와 노우비(濃尾) 평야의 추석 밤을 선명하게 비추는 불꽃놀이인 노우비다이하나비(濃尾大花火) 같은 대형 이벤트와 더불어 엔쿠(円空) 불상과 혼가쿠지(本覚寺) 절을 비롯한 역사, 문화 자원도 풍부하다.



하시마시의 역사와 문화

매년 5월 3일, 하시마시에서는 미노타케하나마쓰리가 열린다. 에도시대(江戸時代)가 기원인 화려한 13대의 수레가 격년마다 교대로 절반씩 퍼레이드를 한다. 측면과 뒷부분에 화려한 대형 장막이 장식되며, 가라쿠리 인형(カラクリ, 일본 전통의 기계로 작동하는 인형)과 어린이 테오도리(手踊り), 앉아서 손짓만으로 추는 춤)이 있는 수레는 기후현 지정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서 예술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역사적 유산 중 하나로 혼가쿠지 천정화가 있다. 혼가쿠지는 다케가하나성(竹ヶ鼻城) 성주의 역대 보리사(菩提寺 조상의



묘, 위패를 모신 절)다. 본당에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표현한 천정화 ‘운류(雲龍)’는 에도 막부 말기, 일본화의 한 유파인 아마토에(大和絵)를 그린 우키타 잇케이(浮田一恵)의 작품으로 기후현 중요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하시마시는 고승 ‘엔쿠(円空)’의 출생지라고 한다. 엔쿠는 1632년 하시마시 가미나가정(上中町)에서 태어났으며, 홍수로 비명 횡사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출가, 일본 전국으로 방랑 여행을 떠났다. 방랑 중에 약 12만 점의 불상을 조각했



으며, 하시마 시내의 나카칸논도(中観音堂)·하시마엔쿠(羽島円空) 자료관에는 본존인 ‘십일면 관음상(十一面観音像, 222cm)’을 비롯하여, 17점의 엔쿠 불상을 직접 볼 수 있다.

특산품과 음식

하시마시의 특산품으로 ‘연근’이 있다. 연근은 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앞날을 내다 볼 수 있는 상서로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시마시 연근은 기후현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상서로운 연근을 사용한 독특한 요리를 하시마 시내 음식점에서 즐길 수 있다.

또 이 지역만의 음식으로 ‘미소기 단고(みそぎ団子)’가 있다. 미소기 단고는 팔을 넣은 경단에 된장을 발라 구운 떡으로, 팔 고물의 단맛과 된장의 짭맛이 내는 절묘한 풍미가 특징이다. 매년 6월 30일 무병안녕을 바라는 ‘미소기신지(みそぎ神事)’와 7월 1일·15일 ‘다이다이마쓰리(代々まつり)’ 축제가 있는 날 등을 중심으로 하시마 시내의 일본 과자점에서 판매한다.

꽃과 축제

수령 300년 이상이라는 등나무 ‘다케하나베쓰인의 후지(竹





鼻別院のフジ’는 하시마 시내에서 유일한 기후현 지정 천연 기념물이다.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이 절정으로 연보라색의 화려한 꽃이 만개한다. 등나무 시렁 밑에서는 개화에 맞춰 ‘미노타케하나 후지마쓰리(美濃竹鼻ふじまつり)’ 축제가 개최되며, 말차 코너와 간식식당 등 각종 이벤트가 펼쳐진다.

하시마시의 여름 풍물시로서 8월 14일 이루어지는 ‘노우비 다이하나비’가 있다. 기소가와 강 건너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愛知県 一宮市)와 공동 개최하며, 밤하늘에 5,000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여름 축제다. 도카이(東海) 지역 굴지의 2자(60cm)에 이르는 박력 있는 불꽃과 큰 호평을 얻고 있는 역(逆) 나이가가라 불꽃 등, 빛과 소리의 대경연으로 열기가 고조된다.

여름 꽃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해바라기. 하시마시에서는 7월 하순부터 이치노에다(市之枝) 지역의 휴경지가 온통 해바라기 밭으로 변한다. 광대한 전원에 핀 해바라기는 박력이 넘친다.

하시마시 관광정보

하시마시에는 사계절 내내 멋진 볼거리가 많다. 올 4월 오픈 한 ‘하시마 관광교류센터(애칭:구룟토 하시마)’는 시내 관광거점으로 정비되었으며, 자세한 관광정보는 하시마시 (<http://www.city.hashima.lg.jp>)와 하시마시 관광협회 (<http://hashimakanko.jp/>)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구룟토 하시마

메이지 시대(1868~1912)의 흙으로 만든 창고를 개축한 2층 건물인 ‘체험동’과 와이파이가 정비되어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휴식동(휴게소 40석)’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동 1층은 관광안내와 선물을 판매하고 있다. 2층은 에도시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명직물인 미노지마(美濃織) 소개 공간으로 미노지마 직조체험이 가능하다(체험일 확인 필요).

(집필: 기후현 하시마시, 협력: CLAIR, Seoul)



전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는 만화

만화에는 카툰, 캐리커처, 코믹스, 웹툰 등 여러 종류와 영역이 있다. 그 만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로 한 컷의 그림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아 감동을 전할 수 있다. 본지에서도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유쾌한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는 작가 최현정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커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살던 곳은 농촌이라 집 주변이 전부 논밭이었고 스케치북이나 그림 도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땅바닥이나 벽에 숯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로 했죠. 만화방도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기적으로 구독한 잡지에 실린 만화나 일러스트 등을 보면서 만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만화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화학과를 만든 '국립공주전문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 만화예술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프로 만화가가 되고 싶어 여러 공모전에 응모했지만, 생활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은 팬시 용품 회사에 입사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되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제 자신을 좀더 갈고 닦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 최초로 만화학부를 설립한 교토세이카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지역이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느낀 어려움에 대해 알려 주세요.

일본어는 유학 가기 전에 수개월간 학원을 다니며 배웠지만, 일본에 가서도 처음에는 히라가나나 가타가나를 읽는 정도라 어려

マンガ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

幼い頃から、絵を描くのが好きだったので、大きくなったらマンガ家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私が住んでいたところは農村だったので、家の周辺が全部田畑で、スケッチブックや絵の道具を探すのも難しく、地べたや壁に炭で絵を書いていました。貸本屋もなく、小学校4年生から定期的に購読した雑誌に掲載されたマンガやイラストなどを見ながら、マンガ家への思いがより強くなりました。本格的にマンガを勉強し始めたのは、韓国で初めてマンガ学科を作った「国立公州(コンジュ)専門大学(現, 国立公州大学)マンガ芸術学科」に入学してからです。大学卒業後にはプロのマンガ家になりたくて、色々な公募展に応募しましたが、生活の問題もあり、まずはファンシー・グッズの会社に入社し、キャラクターのデザインをしました。しかし、毎週、新しいアイデアを提出することになると限界を感じるようになり、自分を磨き上げるために会社をやめて、日本初のマンガ学部を設立した京都精華大学へ留学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一番印象に残っている地域や日本で生活しながら感じた難しさを教えてください。

日本語は留学する前に、数か月間、塾で学びましたが、日本へ行



움이 많았습니다. 1년동안 도쿄에서도 생활했지만, 복잡하고 속도가 빠른 도쿄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신기하게 느껴진 반면, 고즈넉한 교토는 '일본 속의 일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토에서 생활하며 많은 이웃과 친구를 만났어요. 4년간 만화학부에서 신세를 진 전공교수님보다 오히려 타 학부인 환경학부 교수님과 더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 교수님은 오사카의 쓰루하시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 친구가 많아서 그런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국경을 초월해 모든 학생을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시는 날에도 선생님의 연구실은 늘 학생들로 북적거렸죠. 일본인은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좀처럼 집으로 초대하지 않지만, 선생님 댁에 가면 항상 학생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모님께서 아끼던 인삼을 넣어 삼계탕을 끓여 주셨는데, 마치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을 먹는 것 같아 감동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새소식'에 연재 중인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있나요.

처음에는 유학생들과 관련된 만화를 '페이퍼'라는 잡지에 1년간 연재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로도 스케치와 기록을 계속했는데, 양국의 가교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는 '혹시, 한국인이란 이유로 일본인들에게 차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편견이 있었고, 출국 직전까지 부모님과 주변에서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가보니, 그들도 우리처럼 얼굴을 마주보면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화가 부부는 본인들이 일본의 엄마와 아빠라며, 직접 재배한 야채를 주거나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졸업작품으로 유학생들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귀국해서는 에피소드를 묶어 책으로 내기 위해 출판사와 협의도 했지만, 마침 양국에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서 불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일본의 새소식'을 보고 '이렇게 훌륭한 잡지에, 왜 만화를 연재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관계자에게 직접 제안을 드렸고,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재미있는 내용을 그리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ひらがなやカタカナを読める程度だったので, 困難なことが色々ありました。1年間は東京でも生活しましたが, 複雑でスピードの速い東京は全てになじめず, めずらしく感じられた反面, もの静かな京都は「日本の中の日本」と感じられました。京都で生活しながら多くの隣人と友達に出会いました。4年間, マンガ学部でお世話になった専攻教授よりも, むしろ他学部である環境学部の教授と親しくなりました。その教授は, 大阪の鶴橋出身で, 幼い頃から韓国人の友達が多かったためか, 韓国文化に関心が高く, 国境を越え, 全ての生徒を暖かく迎えてくれました。教授がいない日も先生の研究室はいつも学生で賑わっていました。日本人はとても親しい関係でないとなかなか家には招待しませんが, 先生のお宅に行くと, いつも学生の客がいました。いつだったか奥様が大事にしていた高麗人参を入れたサムゲタンを作ってくれましたが, まるで母の手作り料理を食べているようで感動しました。

今, 『イルボネ・セソシク』で連載中の「お〜きにチェ・ヒョンジョンの留学報告書」はどんな気持ちで描いていますか。

最初は留学生生活と関連するマンガを「ペーパー」という雑誌に1年間連載しました。これを契機として, その後もスケッチや記録を続け, 両国の架け橋になる「何かをしてみたい」という気持ちは, 時間が経つほどに強くなりました。実は, 私も日本へ留学する前までは「もしかしたら韓国人という理由で日本人から差別を受け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と偏見があったし, 出国直前まで親と周辺から反対されました。しかし, 実際に日本へ行ってみると, 彼らも我々のように顔を向け合えば笑い, 悲しい時には一緒に泣き, 慰め合う温かい心の隣人であることが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ある画家の夫婦は, 自分たちが私の日本のママとパパだと言いながら, 直接栽培した野菜をくれたり, 料理を作ってくれたりしました。卒業作品として留学生生活について描いたものを展示し, 帰国してからはエピソードをまとめて本を出すために出版社と打ち合わせもしましたが, ちょうど両国に敏感な問題が発生し, 不発に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しかし, いつかはチャンスがあると信じて諦めませんでした。そのような中, 公報文化院で発行する『イルボネ・セソシク』を見て, 「こんなに素晴らしい雑誌にどうしてマンガを連載しないの

만화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세이카대학 만화학부에서는 카툰만화를 전공했는데, 카툰은 '한 컷에서 네 컷까지의 만화'로 글 없이도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힘을 지닌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스토리 만화를 배웠습니다. 둘 다 장점이 많지만, 문자나 언어의 차이를 초월해서 전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만화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교토를 비롯해서 일본 각지를 여행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나 여행기를 블로그에 포스팅 하거나, 만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규슈관광추진기구의 제안으로 오이타현과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3곳의 '규슈올레'를 걸었고, 그 내용을 만화로 그렸습니다.

이 때 만났던 시마바라반도 관광연맹으로부터, 시마바라반도를 취재해서 만화로 그려 한국에 널리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짬뽕'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곳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시청 직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NHK 드라마 '우리 아버지는 짬뽕맨'의 모델인이자 '짬뽕 반장'으로 유명한 분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처럼 일로 이어지는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도 유학보고서는 여행으로 알 수 없는, 일본에서 생활해본 한 개인의 체험담을 만화로 그려가고자 합니다. 또, 지금까지 취재여행을 통해 일본에도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아 다니며 소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싶습니다.

か」という気持ちを持ったので、関係者に提案を直接行い、これまで連載しています。これから人間の暖かい温もりが感じられる面白い内容を書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マンガの魅力は何でしょうか。

精華大学のマンガ学部ではカートゥーン・マンガを専攻しましたが、カートゥーンは「ワンカットから四コマまでのマンガ」で、文字もないのに人を笑わせたり泣かせたりする力を持つ魅力的な分野です。大学院ではストーリーマンガを学びました。両者ともたくさんの長所がありますが、文字や言語の違いを越えて、全世界の人の心を動かすことができるのがマンガの力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現在、日本と関連してどんな仕事をしていますか。

京都をはじめとして、日本各地を旅行しながら、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場所や旅行記をブログにostingしたり、マンガを描く仕事をしています。昨年と一昨年には九州観光推進機構の提案で大分県、熊本県、長崎県の3か所の「九州オルレ」を歩き、その内容をマンガとして描きました。

この時に会った島原半島観光連盟から、島原半島取材してマンガを描き、韓国に広く伝えてほしいという提案を受けました。特に小浜は「ちゃんぽん」が有名な地域ですが、その長所を伝えるために努力する市役所の職員の実話をベースとして製作したNHKドラマ「私の父はチャンポンメン」のモデルとなり、「チャンポン班長」として有名な方が、今年3月、韓国を訪問してくれました。仕事からつながるこのような縁も大事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これからの展望は。

これからも留学報告書は、旅行ではわからない、日本で生活した個人の体験談をマンガとして描い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また、

これまでの取材旅行を通じ、日本にもキリスト教の歴史と関係のある地域があることを知りました。これからも韓国に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地域を探し、紹介してみたいと考えてます。また、機会があれば、日本にも韓国の文化と歴史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



2016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체험하며 즐기는 일본의 세시풍속전

일시 7월 25일(월)~8월 6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동우화인켄주식회사

문의 02-765-3011(120,123)

*행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www.kr.emb-japan.go.jp>



일본의 세시풍속전

일본의 전통행사인 3월의 히나 마쓰리를 대표하는 히나인형, 5월 단오의 고이노보리(남아의 기상을 나타내는 잉어 모양을 한 장식물), 여름축제를 상징하는 미코시(신을 모시는 일종의 가마)의 축소모형과 마쓰리 인형세트를 비롯한 각종 계절 소품과 음식모형, 각 지방의 전통인형, 완구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전시된다. 자유관람.

일시 7월 25일(월)~8월 6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체험 코너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와 핫피를 입고 금붕어 건지기, 요요 물풍선 낚기 등의 축제놀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일시 7월 25일(월)~8월 6일(토) 전시간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특별 실연회 : 일본의 전통 설탕공예 아메자이쿠(飴細工)



일본의 아메자이쿠시(飴細工師: 설탕공예가) 미즈키 다카히로(水木貴広)씨를 초청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설탕공예기법 아메자이쿠를 소개한다. 자유관람.

일시 7월 29일(금), 30일(토) 14:00~16:00까지 진행 예정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일본전통음악 미니콘서트 & 고토 워크숍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일본전통악기 고토(箏)교실을 개최 중인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씨의 미니콘서트가 개최된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고토 체험 워크숍이 진행된다.



일본전통음악 미니콘서트

일시 7월 26일(화) 14:00~15: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선착순 입장)

고토 워크숍

일시 7월 26일(화) 15:10~16:1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신청방법 이메일(event@so.mofa.go.jp) 예약.

20명(1회 5명씩 4회, 1회 15분)

신청기간 7월 11일(월)~21일(목), 예약 접수자에게 확인메일 발송

초등학생을 위한 일본문화체험교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일본 및 일본문화소개 강의와

종이공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소요시간 약 1시간).

일시 7월 25일(월) 11:00

27일(수) 14:00 / 28일(목) 11:00 / 30일(토) 11:00, 14:00

8월 1일(월) 14:00 / 6일(토) 11:00,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신청방법 이메일(event@so.mofa.go.jp) 예약, 각 회당 20명

신청기간 7월 6일(수)~각 체험일 2일 전까지(선착순 마감),

예약 접수자에게 확인메일 발송



특별공연 : 히투(Hi2) & 이즈마(izuma) 환상의 매직 퍼포먼스

여름일본문화소개

전의 특별 행사인

매직 퍼포먼스쇼!

꽃미남 매지션 히투

(Hi2)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매직과 매혹

적인 여성 매지션

이즈마(izuma)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마술이 한데 어우러진다.

또 막간에는 일본 전통 시시마이(사자춤)의 흥겨운 마당이 펼쳐진다.

일시 8월 2일(화) 19:30, 3일(수)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신청방법 이메일(event@so.mofa.go.jp) 예약,

신청기간 7월 6일(수)~31일(일), 예약 접수자에게 확인메일 발송



제14회 일본가요대회

일본가요대회가 오는 7월 29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40세 미만의 한국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일본방문 프로그램 참가자격 제공을 비롯하여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무료관람.

본선 7월 29일(금) 18:30~

예선 7월 15일(금) 14:00~, 7월 16일(토)~17일(일) 11: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반법인 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PROMIC)

후원 Victor Entertainment Inc., BOSS Inc., CMG초록별 엔터테인먼트

협찬 DK KOREA,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Serafina NEW YORK,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중부섬유

문의 02-765-3011(110, 125), jmic@so.mofa.go.jp

[응모 개요]

3일간의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팀을 결정한다. 예선에서는 노래 1절만으로 심사하며, 본선 진출자는 곡 전체를 부르게 된다. 반주는 예선, 본선 모두 가라오케를 사용하며, 본선에서는 모니터를 볼 수 없다. 본선은 일반공개로 진행되며, 일본의 아티스트 2팀이 마련하는 스페셜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기간 6월 13일(월)~7월 11일(월)

방법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mic@so.mofa.go.jp) 접수

본선 진출자 발표 7월 21일(목)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축하공연 아티스트]

젠틀리(Gently)

오사카(大阪) 출신 형제 남성 듀오. 2014년 3월 2일 첫 번째 싱글 '미래를 위하여 未来のために'로 데뷔. 한국 기획사 CMG 초록별과 계약해서 'EDM VOCAL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8월에는 'HERO-SWAY'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앨범이 발표될 예정이다. 2017년 2월에 개봉 예정인 한국과 일본의 공동제작영화 '같은 하늘 아래서'에도 출연 예정이다. <https://www.facebook.com/gently.korea/>

아스카 토모미(飛鳥とも美)

홋카이도(北海道) 출신. 2009년 사이타마현 가라오케대회 우승 당시, 빅터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눈에 띄어 오디션에 참가, 발탁되었다. 그 후, 가창레슨과 무대연습을 거쳐 2013년 6월 19일 '당신으로 결정했습니다(あなたに決めました)'로 데뷔. 빅터 엔터테인먼트에서 16년 만에 탄생한 정통파 여성신인 엔카 가수다. '건강랜드(健康ランド, 겐코란도)의 여왕'으로서, 사이타마현·군마현의 건강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메이저 데뷔를 계기로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부터는 대만 활동도 병행하며 한층 열정적으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http://ameblo.jp/tomomi-aska/>



제12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개최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와 일본인 한국어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회나 문화에 대해, 상대방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돈독히 할 목적으로 매년 '한일교류 말하기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도 8월 6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AA 대한민국지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주최로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일시 8월 6일(토) 14:00~16: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AA 대한민국지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협력 및 후원 Seoul Japan Club,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Inpainter Global

문의 JETAA대한민국지부 jetaakorea@gmail.com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40)

제12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한국인과 일본인의 상대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는 행사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第12回日韓交流スピーチ大会
 8월 6일(토) 14:00~16:30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40)
 8월 6일(토) 14:00~16:30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뉴센추리홀
 후원: JETAA대한민국지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사무소, Inpainter Global
 문의: JETAA대한민국지부 jetaakorea@gmail.com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40)

제5회 한국대학생 일본어디베이트(토론)대회 참가대학 모집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주부산일본인회, 한국대학생 일본어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한일본어강사연구회, 부산일본어교사회

일정 부산대회 9월 24일(토) 10:00~ (동의대학교)

서울대회 9월 25일(일) 10:00~ (건국대학교)

전국대회 10월 1일(토) 10:00~ (동의대학교)

참가조건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문의)
-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며, 소속 대학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팀.
- 영남지역 소재 대학은 부산대회, 그 외에는 서울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1대학에서 1팀(3~4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3명 출전도 인정. 희망 팀은 문의 바람)
- 4명 중 3명(3명 팀인 경우는 2명)은 일본 체류 경력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1명은 5년 미만까지 인정한다.

구성 1팀 3~4명(입론 · 질의 · 제1반박 · 제2반박)

※3명인 경우, 입론과 질의를 겸한다.

규칙 한국대학생 일본어디베이트대회 홈페이지(<http://goo.gl/oDG5gE>)에서 '대회규칙과 세칙' 확인
대전

- 각 대회 예선 2경기(공정 · 부정) 후, 상위 팀으로(준결승) 결승전을 실시한다.
- 서울대회 및 부산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 총 4팀은 10월 1일(토) 전국배(전국대회)에 출전.

논제

한국은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韓国は育児休業を義務化すべきである。是か非か。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goo.gl/Uj31EP>에서 확인.

본 논제는 디베이트(토론)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

신청 1차 신청 마감 8월 8일(월) 24:00 ⇒ <http://goo.gl/forms/LARW8hON32WiGarX2>

※멤버 등록 등은 참가 신청 후, 별도 연락

문의 한국대학생 일본어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이메일 nihongodebate@gmail.com

홈페이지 <http://nihongodebate.wix.com/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JapanDebate

21세기에 요구되는 '스팩'이 여기에 있다!
 http://goo.gl/eUNhKp
THE 5TH ALL KOREA UNIVERSITIES JAPANESE DEBATING TOURNAMENT
NIHONGO DEBATE TOURNAMENT
제5회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All Korea Universities Japanese Debating Tournament
 주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주부산일본인회,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운영위원회
 후원: JETAA대한민국지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사무소, Inpainter Global
 문의: JETAA대한민국지부 jetaakorea@gmail.com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40)
 부산대회: 9월 24일(토) 10:00~ 12:00, 장소: 동의대학교
 서울대회: 9월 25일(일) 10:00~ 12:00, 장소: 건국대학교
 전국배: 10월 1일(토) 10:00~ 12:00, 장소: 동의대학교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2005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일한 우정의 해'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다.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축제로 단순한 문화행사에 머물지 않고 시민교류, 청소년교류, 지방단체교류 등 대규모 문화교류행사라 할 수 있다.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을 테마로 이루어지는 2016년 '한일축제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예정이니, 양국의 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일정 10월 2일(일) 10:00~19:30

장소 코엑스 B홀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운영위원회

[모집 개요]

활동시간 자원봉사신청서 참조

응모자격 고등학생 이상,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
단체 우선선발(대학생&일반)

모집분야 각 팀 별 역할 안내

- 부스팀 : 지방자치단체 부스, 기업홍보 부스, 체험 이벤트 부스, 푸드판매 및 교류 부스, 미아응급 부스 운영
- 홍보팀 : 사진 및 영상기록, 당일 현장 홍보, 홍보 부스 등 운영
- 무대팀 : 무대 지원, 출연팀 수행과 행사장 안내, 대기실 운영, 악기 운반, 행사 지원, 출연팀 지원
- 행사운영팀 : 운영사무국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통역 및 도우미, 안전관리(긴급대응), 행사장 안내 및 정리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6월 1일(수) ~ 7월 31일(일) *신청자 수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서류 신청서 1부(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www.omatsuri.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omatsuri2016@naver.com)

[합격자 발표]

8월 22일(월) 18:00, 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 SNS 및 개별통보

[오리엔테이션] 1차, 2차 중 택1

1 차 9월 2일(금) 18:30~20:30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예정)

2 차 9월 4일(일) 14:00~16:0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예정)

(오리엔테이션 참석 가능자에 한해 우선 선발)

[기타 사항]

- 자원봉사자는 각 팀 최소 2인 이상 인원을 배치 예정, 교대로 행사 관람가능.
- 행사 당일 점심 및 간식 제공.
-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인증서(1일 최대 8시간)' 발급.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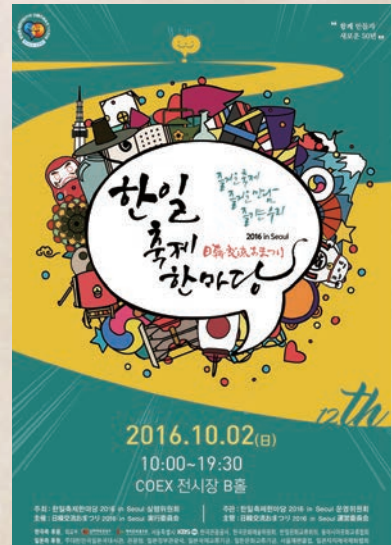
[문의 및 신청]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한국측 운영사무국 (주)셋강나루

TEL 02-702-7724(직통) FAX 02-702-7798

e-mail omatsuri2016@naver.com

공식 홈페이지 www.omatsuri.kr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안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는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일본의 여름은 마쓰리의 계절. 매년 7월 중순이 되면 교토 시내의 중심가는 이유있는 교통통제가 시작되는데 교토인들은 이 큰 불편을 즐겁게 감수한다.

손님, 때가 때인만큼
목적지까지 조금
돌아서 가겠습니다.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래요~?

그 이유는 일본 3대 마쓰리의 하나로 손꼽는 교토 기온마쓰리가 있기 때문. 유네스코 무형문화제로 등록되어 있는 교토 기온마쓰리, 마쓰리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축제나 잔치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제사의 의미가 강하다.

약 1,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교토 기온마쓰리는
전국 기온사의 총본사인
교토 야사가 신사
(八坂神社)의
신앙제례예요.



기원은 헤이안시대(平安時代)인 869년(貞觀11년), 천하에 역병이 창궐해 사망자가 속출하던 때, 이조성(二条城) 남쪽에 있는 헤이안교(平安京)최고(最高)의 정원 신센엔(神泉苑)에 66개의 창을 세워 역병을 피하기 위해 소두천왕(牛頭天王)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그 시초다. 그리고 이 제사의식은 7월 1일부터 약 한달 동안 행해지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7월 17일에 있는 큼직한 수레인 아마보코 순행(山鉾巡行)이다.



9개 호코와 23개의 야마를
통틀어 '아마보코'라고 한다.

호코(鉾)의 무게 약 7톤, 높이는
지붕까지 약 8미터, 그에 비해
야마(山)는 덩치가 작다.
주변은 호화로운
타페스트리(毛織) 등으로
장식하고 40명 이상의
사람이 밧줄로 끌어서
바둑판 같은 교도의
시내를 순행한다.

*선두 나가나타 호코(長刀鉾)



이 아마보코 순행의 불거리 핵심은 조타기(操舵機)가 없는 야마보코를 90도 방향으로 트는 쓰지마와시(辻廻し)인데 쓰지마와시는 바퀴 밑으로 푸른 대나무를 깔아 물을 뿌려가며 미끄러짐을 이용해 수레의 무게를 인력에 의해 방향을 트는 것이다. 이때 지면을 울리는 함성과 관중의 박수소리.



또한 32개 각 수레를 장식하는 색실로 짠 타페스트리의 그림들을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다. 신기한 것은 전혀 일본스럽지 않은 의외의 그림들도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간코보코(函谷鉾)에는 구약성경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야기 장면이 그려져 있어 굉장히 인상적이다.



앗! 저것이 약 300년 전,
에도시대 때
규슈의 히라도(平戸)를 통해
일본에 들어 온 벨기에의
직물이구나!

*마쓰리 기간 중 이 원본은 별도의
장소에서 전시한다.

기온마쓰리는 전야제인 16일 저녁, 야마보코의 제등장식을 볼 수 있는 요이야마(宵山)는 물론 뜨끈뜨끈 잘 달궈진 개방된 도로위를 걷는 것에서부터 그 열기를 더한다.



마쓰리의 꽃은
단연 야타이
(포장마차)!!



금강산도
석후경이라는~